

구약 여러 책에 나오는 מַשְׁמָנִים의 통일성 있는 번역 제안

이은우*

1. 들어가며

존 로스(John Ross)에 의해 성경이 우리말로 처음 번역된 후 성경 번역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성경 본문과 언어 연구가 상당히 발전했고 전문적인 연구를 한 학자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다. 그 결과 성경 번역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성경 여러 책 사이의 번역 통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각 번역본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번역 성경의 구약 여러 책에 나타나는 מַשְׁמָנִים의 번역 문제를 살펴보며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מַשְׁמָנִים

מַשְׁמָנִים은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 13:18; 여호수아 1:14; 4:12; 사사기 7:11에 나타난다.¹⁾ 각 번역 성경의 구약 여러 책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출애굽기 13:18의 מַשְׁמָנִים 번역

『개역개정』 “대열을 지어”

『성경』 “전열을 갖추고”

『공동개정』 “단단히 무장하고”²⁾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학술연구교수), 구약학.

1) HALOT I (331), DCH III (259)는 민 32:17의 מַשְׁמָנִים도 מַשְׁמָנִים의 이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מַשְׁמָנִים은 מַשְׁמָנִים의 능동 분사형으로 מַשְׁמָנִים과는 어근이 다르다.

『개역한글』	“항오를 지어”
『표준』	“대열을 지어”
NIV	“armed for battle”
NRS	“prepared for battle”
NET	“prepared for battle”
ZB	“kampfgeruestet”
NZB	“in Kampfordnung”
DNB(BgS)	“gut ausgestattet”

(2) 여호수아 1:14의 מִשְׁנָה 번역

『개역개정』	“무장하고”
『성경』	“무장을 하고”
『새번역』	“무장을 하고”
『공동개정』	“부대를 편성”
『개역한글』	“무장하고”
『표준』	“무장을 하고”
NIV	“fully armed”
NRS	“armed”
NET	“armed for battle”
ZB	“geruestet”
NZB	“in Kampfordnung”
DNB(BgS)	“kampfbereit”

(3) 여호수아 4:12의 מִשְׁנָה 번역

『개역개정』	“무장하고”
『성경』	“무장을 하고”
『새번역』	“무장하고”
『공동개정』	“전투 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³⁾
『개역한글』	“무장하고”
『표준』	“무장하고”
NIV	“armed”
NRS	“armed”
NET	“armed for battle”
ZB	“bewaffnet”

2) 『공동번역』과 『공동개정』의 번역이 같아 여기에서는 『공동개정』의 번역만 소개했다.
 3) 『공동개정』의 이 번역은 번역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맞춤법에 문제가 있다. “전투대열을 편성 해서” 정도가 우리말 표현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NZB “in Kampfordnung”
 DNB(BgS) “kampfbereit”

(4) 사사기 7:11의 מִצְבֵּי־צִנִּיָּהּ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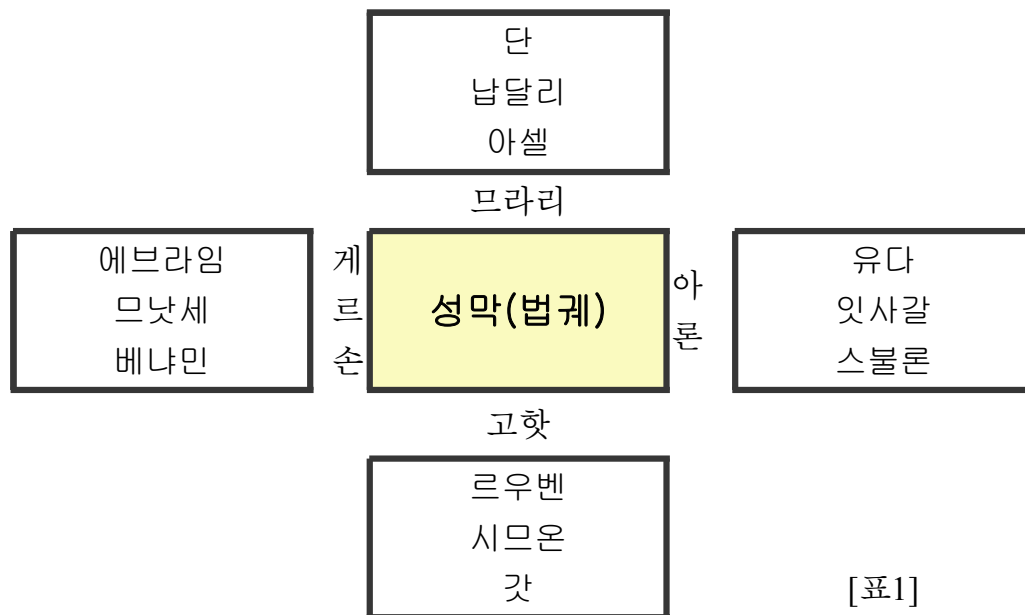
『개역개정』 “진영”
 『성경』 “진영”
 『새번역』 “적진”
 『공동개정』 “적진”
 『개역한글』 “진”
 『표준』 “적진”
 NIV “the outposts”
 NRS “the outposts of the armed men”
 NET “where the sentries were guarding the camp”
 ZB “Lager”
 NZB “Lager”
 DNB(BgS) “in Kampfformation”

위에서 보듯이 각 번역 성경에서 מִצְבֵּי־צִנִּיָּהּ에 대한 번역이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표준새번역』은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를 “대열을 지어”로 번역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무장(을) 하고”로 번역하고, 사사기에서는 “진영”, “적진”으로 번역한다. 『공동개정』은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를 “단단히 무장하고”로 번역하고, 여호수아에서는 “부대를 편성”하고로 번역하고, 사사기에서는 “적진”으로 번역한다. 『개역한글』 출애굽기는 이 단어를 “향오를 지어”로 번역하고, 여호수아는 “무장하고”, 사사기는 “진”으로 번역한다. 2005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낸 『성경』의 탈출기는 이 단어를 “전열을 갖추어”로 번역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무장을 하고”로 번역을 하고, 판관기에서는 “진영”으로 번역한다. NIV와 NRSV 등 영어 번역은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 “무장하고”의 의미로, 사사기에서 “진영”의 의미로 번역했다. NET 역시 출애굽기에서는 “전투 준비를 하고”로 번역했고, 여호수아에서는 “전투를 위해 무장하고”로 번역했고, 사사기에서는 “경계병이 진을 경계하는 곳”으로 번역했다. 독일어 번역본인 ZB는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를 “무장하고”(kampfgeruestet)로 번역하고, 여호수아에서도 “무장하고”로 번역했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는 “geruestet”을 4장에서는 “bewaffnet”으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 번역했다. 사사기에서는 “진영”(Lager)으로 번역했다. DNB(BgS)는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를 “잘 무장하고”(gut ausgestattet)로 번역했고, 여호수아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kampfbereit), 사사기에서는 “전투 대형으로”로 번역했다. NZB는 비교적 통일된 번역을 보이는데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는 “전투 대형으로”(in Kampfordnung)로 번역한다.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이 단어를 “진영”(Lager)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번역본이 성경의 여러 책에서 한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각 번역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מִשְׁפָּחַת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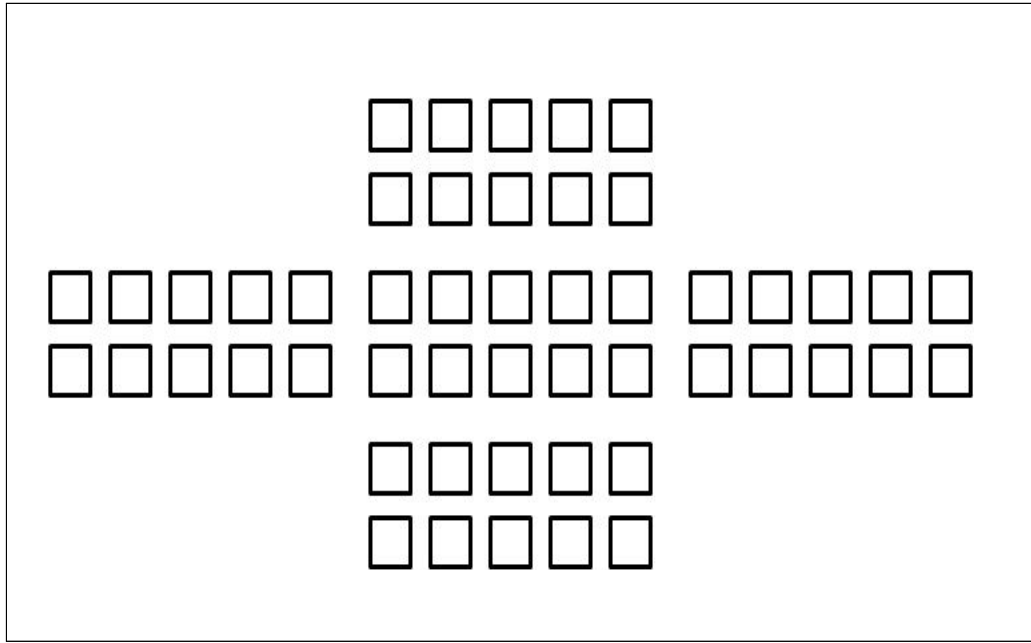
2.2. מִשְׁפָּחַת의 의미

מִשְׁפָּחַת은 “5가 되다”, “5이다”를 의미하는 동사 מָשַׁח의 칼, 수동, 분사, 남성, 복수형이다. מָשַׁח의 시리아어와 아랍어의 같은 어근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마리아 오경에는 מִשְׁפָּחַת이 מִשְׁפָּחַת의 형태로 나타난다. 고대 남아랍어 ḥms는 “군대”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아랍어 ḥamīs는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대”란 의미로 사용되었다.⁴⁾ 메이어(Meyer)는 מִשְׁפָּחַת을 “전투 대형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⁵⁾ DCH는 이 단어를 “전투를 대비해 50명으로 무리를 지어”(be grouped in fifties in battle-readiness)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⁶⁾ 이 제안은 “50”이라는 숫자와 “전투 대형”이라는 의미를 잘 반영한 해석이지만 여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 단어는 구약주변세계에서 전쟁할 때 정방향으로 이동하는 전투 대형과 관계 깊다. 이는 법궤와 레위인을 중앙에 배치하고 다른 12지파가 둘러싼 모습으로 행군하는 모습을 반영한 민수기 2장의 광야 행군 시 이스라엘의 진배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표1]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단어가 나타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따라서 위의 어원과 여러 주변 인접 언어의 의미를 종합해 이 단어를 해석 하면 “50명씩 무리를 지어 정방형의 전투 대형으로”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한 단어임을 고려해 실제 성경 번역에 적용한다면 위의 의미를 인식 하고 “전투 대형으로”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3. 기존 번역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מִשְׁפָּטֵי 의 기본적인 의미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정방형의 전투 대형으로”의 의미이다. 하지만 기존의 번역본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번역하고 있으며, 각 번역본이 성경의 여러 권에서 서로 통일된 번역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각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4) HALOT I (331).

5) E. Meyer, *Die Israeliten und ihre Nachbarstaemme*, Halle 1906 (repr. Darmstadt 1967), 501; M. N. Van der Meer, *Formation and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Leiden: Brill, 2004), 243.

6) DCH III (259).

번역될 수도 있으므로 성경의 여러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고,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13:18의 번역에서 『공동개정』과 NIV, NRSV, NET, ZB, DNB(BgS)는 “무장하고”, “전투준비를 하고”의 의미로 번역하지만, 이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개역개정』, 『성경』, 『새번역』, 『개역한글』, 『표준새번역』은 “대열을 지어”, “전열을 갖추고”, “항오를 지어” 등으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들에는 “전투”나 “전쟁”의 의미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본문은 출애굽 사건, 특히 홍해 건너는 사건을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 맞서 싸우는 독립 전쟁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본문으로 이 연구에서 밝힌 어원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투 대형으로”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 예로 든 번역본 중 독일어 번역인 NZB만이 “전투 대형으로”(in Kampfordnung)라는 의미로 비교적 타당한 번역을 제공한다. LXX 출애굽기 13:18은 πέμπτη γενεὰ로 번역하며 “5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자음 מִשְׁמָחָה를 מִשְׁמָחָה보다는 מִשְׁמָחָה로 읽은 것으로 보인다. 여호수아 번역은 『공동개정』과 NZB를 제외한 모든 번역본이 מִשְׁמָחָה를 “무장하고”의 의미로 번역한다. 하지만 구약에서 “무장하고”를 의미하는 단어는 מִלְחָמָה이다.⁷⁾ 민수기 32:27, 29, 30, 32와 신명기 3:18에서도 “무장하고”의 의미로 מִלְחָמָה를 사용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 4장의 번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호수아 4:12에는 מִשְׁמָחָה이, 여호수아 4:13에는 מִלְחָמָה이 사용된다. 『공동개정』과 NZB를 제외한 모든 번역본이 두 단어 모두 “무장하고”의 의미로 번역한다. 이 문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12절의 מִשְׁמָחָה는 “전투 대형으로”, 13절의 מִלְחָמָה는 “무장하고”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사사기 7:11의 번역에서는 독일어역 DNB(BgS)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번역본이 מִשְׁמָחָה를 “진영” 혹은 “적진”으로 번역한다. 구약성경에서 “진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사기 7:11에서 마지막 단어로 사용된 מַחֲנֶה이다. מִשְׁמָחָה과 מַחֲנֶה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사기 7:11에서도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와 마찬가지로 מִשְׁמָחָה를 “전투 대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번역이 다소 까다로워 보이는 사사기 7:11의 후반부를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진영이 있는 전투 대형 근처로 내려갔다”로 다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7) BDB (322), HALOT I (311-322)

3. 결론

위의 연구에서 우리는 מִשְׁמָנָה의 번역에 나타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각 번역본이 מִשְׁמָנָה의 어원적,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번역하고 있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정방형의 전투 대형으로”이다. 따라서 각 번역본은 מִשְׁמָנָה의 번역에 이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 한 단어의 번역으로 필자의 번역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전투 대형으로” 정도로 번역하고 난하주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같은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등 구약성경의 여러 책의 번역이 모두 다르다. 한 책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 번역했다 할지라도, 다른 책에서는 다른 의미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바르게 파악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개별 책의 번역자가 달라서 생겨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 이유로 개별 책을 서로 다른 학자가 번역한다 할지라도 각 번역자는 같은 단어를 다른 책의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서로 통일하고자 하는 논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מִשְׁמָנָה 이외에 이 문제를 가진 단어가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투고 일자: 2012. 10. 18.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6.)